



공무원연금과 직장인연금 통합 추진 계획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가입하는 공제연금과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2012년 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정하고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감.
 -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(기초연금),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(소득비례연금), 공무원·사립교직원의 공제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.
 - 현재 공무원·사립교직원 공제연금과 직장인의 후생연금은 동일하게 소득비례로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데, 공제연금의 재정적자로 연간 5,000억 엔 이상의 정부예산이 동 연금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구조개혁 없이 저기여·고보장의 연금혜택이 제공되어 왔다는 특혜논란이 있었음.
- 일본 민주당 정권은 공제연금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먼저 국가공무원 공제연금과 지방공무원 공제연금, 사립교직원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통일시켜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맞출 방침임.
 - 현재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16.412%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, 개별 공무원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공제연금의 보험료율은 이보다 2%p 정도 낮음.
 - 또한, 공무원은 직역가산급부라는 명목으로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이 비슷한 회사원보다 연금을 2만 엔 정도 더 받는 등 공무원들이 특혜를 누린다는 비판을 받아옴.
-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연금제도를 예외 없이 일원화해 모든 국민이 동일한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, 월 7만 엔의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.
 - 그러나 지난 5월 당내 연금 조사위원회는 단시간 내에 모든 연금을 통일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, 일단 전 국민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후생연금과 공제연금부터 일원화하기로 수정함.

(요미우리신문 9/19, 일본국가전략실 홈페이지)